

계승어 문식성 신장을 위한 SIOP 모형 적용 가능성 탐색

김대회* | 원광대
최선희** | 전주대

< 목 차 >

1. 머리말
2. 계승어 학습의 특수성과 방향성
3. SIOP 모형을 통한 계승어 문식성 신장 방안
4. 맺음말

국문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SIOP 모형을 기반으로 한 계승어 교육을 통해 다문화 배경 학습자의 계승어 문식성을 신장시키고 부모 나라의 언어와 사회, 문화에 대한 맥락적·비판적 이해 능력을 함양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데 있다.

거시적 관점에서 SIOP 모형이 계승어 문식성 신장을 위해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언어와 교과 지식을 동시에 가르치는 이원화 언어 프로그램으로 적용시켜야 한다. 둘째, 학업 문식성 신장을 위한 ‘학습 언어 능력’ 발달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셋째, 언어

* 주저자, 원광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 교신저자, 전주대학교 영어교육과 교수

와 문화, 사회에 대한 코드 변환 능력의 신장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넷째, 학생과 프로그램에 대한 주기적인 진단과 평가가 요구된다. 다섯째, 특화된 교육과정 설계와 자료의 개발이 필요하다. 여섯째, 소수 언어 공동체와 유기적 관련성을 맺고 학습이 진행되어야 한다.

■ 주제어: 계승어 교육, 계승어 학습자, 문식성, 언어 공동체, SIOP 모형

1. 머리말

이 연구는 SIOP(Sheltered Instruction Observation Protocol) 모형을 기반으로 한 계승어 교육을 통해 다문화 배경 학습자의 계승어 문식성을 신장시키고 부모 나라의 언어와 사회, 문화에 대한 맥락적 이해와 비판적 이해 능력을 함양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한 사회에서 통용되는 언어는 사회적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우세한 언어가 있는 반면, 특정 개인이나 가족, 공동체 내 구성원만이 사용하는 소수 언어도 있다. 같은 언어라고 할지라도 그 언어를 사용하는 화자가 어떠한 배경을 지니고 있으며,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사용하는 언어의 성격이 달라진다. 한국어의 경우, 한국에서 나고 자란 화자에게는 모국어가 되지만,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한국에 유입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제2언어가 되고, 한국어가 공용어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개인적인 관심이나 교육과정에 따라 배우는 화자에게는 외국어이며, 민족 교육의 차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재외동포들에게는 계승어의 성격을 지닌다. 이렇듯 언어에 부여되는 다양한 성격에 따라 그 교육의 목표와 방향도 달라지게 마련이다.

계승어(heritage language)는 지역에서 통용되는 공식적인 언어와는 다른, 특정 개인이나 가족, 공동체를 연결하는 데 사용하는 언어를 말한다.¹⁾ 이는

1) 계승어와 비슷한 의미를 지닌 용어는 다양하다. 먼저 ‘소수 언어(minority

제2언어(second language)나 외국어(foreign language)와는 다른 개념으로 계승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태생적으로 공유하는 언어 의식이 존재한다. 즉, ‘계승어’란 다문화 사회에서 국가의 공용어 이외에 이주자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말하며, 국적이나 언어 접촉, 구사능력과는 상관없이 가족의 뿌리를 알 수 있는 언어를 말한다.

계승어 학습자들은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가족의 형성과 거주 공간에 따라 크게 두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국내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의 자녀들이고, 다른 하나는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자녀들이다. 전자의 경우 계승어는 부모 중 한 명 또는 부모가 공유하는 모국어가 되며, 후자의 경우 한국어가 계승어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다문화 가족의 자녀를 이중언어, 이중문화 자원을 지닌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고 결혼이민자가 언어, 문화 자원을 지닌 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등 다문화가족의 문화적 특수성이 긍정적 방향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문화화가 출발되는 가족 내에서부터 다양한 언어, 문화가 자유롭게 소통되고 세대 간 전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단지 언어, 문화의 기능적 전수만이 아니라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긍정적 가치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특정한 언어, 문화에 이미 익숙해진 결혼이민자와 비교해 1차적 사회화, 문화화를 거쳐야 하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에게는 가족 내에 존재하는 문화적, 언어적 요소의 획득이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니라, 가족 내외의 여러 사회구성원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루어지는 만큼 보다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김이선 외, 2010:7).

이 연구는 최근 미국이나 유럽에서 다문화 배경 학습자들에게 투입하여

language)’라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소수(minority)’라는 낱말이 갖는 의미가 다소 부정적이기 때문에 사용을 지양하고 있다(Peyton, Ranard & McGinnis, 2001). 또한 Baker and Jones(1998), Corson(1999), Wiley(2001) 등에서는 ‘heritage language’의 ‘heritage’가 미래가 아닌 과거를, 동시대보다는 전통을 의미하기 때문에 현대 용어로 적합하지 않다고 하여 ‘공동체 언어(community language)’라는 용어를 제안하기도 했고, Yeung, Marsh & Suliman(2000)에서는 ‘가정 언어(home language)’라고 사용하기도 하였다(김현정, 2010:18). 그러나 다른 용어들에 비해 ‘계승어(heritage language)’가 용어 자체로서 그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SIOP 모형을 기반으로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계승어 문식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수업의 방향을 제안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계승어 학습자의 성향을 반영한 계승어 학습이 지닌 특수성을 살펴본 후, SIOP 모형에 기대어 계승어 학습자의 언어 유창성과 학습 문식성 발달이라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계승어 학습의 특수성과 방향성

1) 계승어 학습의 특수성

미국의 NCSSFL(National Council of State Supervisors of Foreign Languages)는 이중언어 교육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하였다.

미국이 세계 리더로서의 역할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미국 국민들이 다양한 언어와 다양한 문화적 맥락 안에서 충분히 의사소통하도록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국민들이 배우고자 선택한 언어 뿐만 아니라 모국어나 계승어의 체계적인 신장을 위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것은 공용어인 영어가 모든 국민들에게 중요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NCSSFL, 1977).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 NCSSFL은 자국민의 언어적, 문화적 다양성을 신장시키기 위해 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교육 체제 내에서 영어에 대한 숙달도가 떨어지는 계승어 학습자에 대해서 더 포괄적이고 대승적인 관점을 표방하고 있다.

계승어 학습자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계승어 학습자에 대해 언어적, 문화적 자원이라는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거시적으로는 이중언어 또는 다중언어 구사 능력, 이중문화 또는 다중문화에 대한 향유 및 비판 능력은 개인적 자산이며, 그것은 개인의 교육적·경제적·정치적 삶을 풍요롭게 한다고 신념이 내재되어 있다. 그러한 개인은 다른 언어나 다른 문화를 지닌 사람들과 접촉하여 상호작용하는 것

을 즐길 뿐만 아니라 개인으로서의 상품 가치, 사회적 이동성, 정치적 힘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관점이다. 미시적으로는 이중(다중)언어나 이중(다중)문화 문식성을 지닌 개인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인적 자원이라는 것이다. 세계화와 인터넷 때문에 개인이 지닌 가치가 점점 사그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언어와 문화를 통해 개인적 정체성과 이데올로기를 유지하는 것은 세상을 보는 개인의 안목을 넓힐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된다는 것이다(Wang & Garcia, 2002:1).

언어적 인권과 필요한 언어적 기술과 화용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은 문화 간 이해를 증진시키고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다. 계승어 학습자는 세대를 통해 전수되어 온 언어적, 문화적 유산을 확고히 정립할 수 있어야 하며,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두 언어에 대한 유창성을 높은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어야 한다. 한 국가에서 외국어 구사 능력의 발달을 도모하는 측면은 소수자 집단이 공유하는 언어나 문화가 그 사회의 소유해야 할 자산이며, 그것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만 하는 인식이 중요하게 자리 잡은 결과이다.

계승어 학습자를 정의하는 것은 학습 대상의 범주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계승어 학습자는 어떤 특정 언어나 인종적 배경으로부터 기인한 단일 집단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Valdés(2001:3~4)에 따르면, 계승어 학습자는 다음과 같은 특질을 지닌다.

- 주류 사회의 모국어를 구사하지 않는 가정에서 자라난 학생
- 계승어를 구사할 수 있거나 들었을 때 거의 이해하는 학생
- 계승어와 공용어를 모두 어느 정도 수준으로 구사하는 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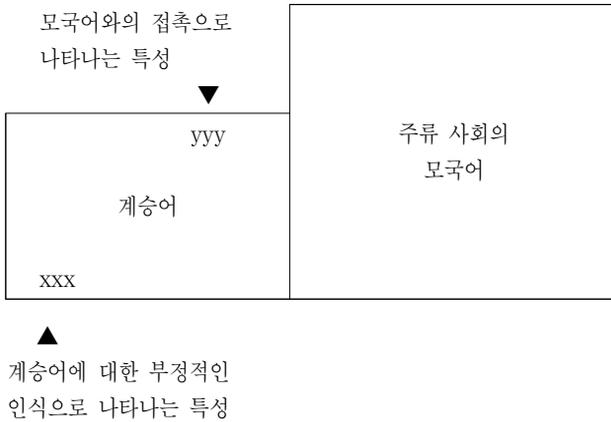
이러한 정의는 계승어 학습자들이 지닌 언어 유창성이 매우 넓은 범위로 퍼져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들은 가족 구성원들이 공유하거나 부모 세대로부터 전수받은 언어와 문화에 대해 아주 낮은 수준의 지식과 능력을 지닌 공용어(L1) 구사자일 수도 있다. 계승어에 대한 언어 능력에 대한 차이는 계승어 학습자 간 이질성이 존재함을 암시한다.²⁾ 다양한 집단 내에서 공유하는 언어, 문화, 정체성, 힘은 사회적 맥락 안에서 인간 간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기 때문에 많은 사회·역사·문화적 요인이 계승어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Wang & Garcia, 2002:2). 출생국가, 입국 조건, 정착지, 정착지에서의 거주 기간, 혈통 국가, 입국 나이, 교육 정도, 사회경제적 배경 등은 계승어 학습자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언어를 발전시키는 데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계승어 학습자의 언어 수준의 차이는 일반적으로 부모가 갖는 언어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결정이 된다. 언어 이데올로기는 언어에 대한 태도와 행위의 방향을 정당화하는 경향을 지니기 때문이다. 즉, 언어 이데올로기는 계승어에 대해 언어 태도와 행동을 조정하는 기제가 된다. 다문화 가족에게 계승어는 인식하는 관점에 따라서 자산이 될 수도 있고, 장애가 될 수도 있다. 계승어 교육과 관련한 언어 이데올로기도 이 두 쟁점을 반영한다. 하나는 계승어에 개인적 또는 사회적으로 긍정적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언어의 사용을 장려하고 전수하려는 친계승어 이데올로기이며, 또 다른 하나는 계승어를 공용어 습득의 간섭 요인으로 간주하여 주류 사회로의 빠른 적응과 흡수를 위해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반계승어 이데올로기이다(김대희, 2012:53~54).

계승어에 대한 가족 내에 형성된 언어 이데올로기는 자녀(계승어 학습자)의 의식에 그대로 전이되는 경우가 많다. 반계승어 이데올로기 환경에 놓인 계승어 학습자들은 그들의 계승어에 대해 자긍심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집안에서만 사용을 하거나 학문적인 맥락과 전혀 관련을 맺지 않으려고 한다거나 표현을 함에 있어서도 계승어를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양상을 보인다. 계승어 학습자의 이러한 언어적 성향은 자연적으로 계승어 능력 신장에 있어서 더딘 발달을 보이게 되며, 언어적 정체성 또한 낮은 수준에 머무르게 된다.

2) Fishman(2001)은 이러한 양상을 고려하여 미국 내 계승어 집단을 크게 세 부류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 집단은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구사하는 토착어 능력을 지닌 집단이다. 두 번째 집단은 북아메리카 초기 정착민들이 구사하는 언어였던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과 같은 식민지 언어를 구사하는 집단이다. 세 번째 집단은 일본어, 중국어, 아랍어, 러시아어 구사자처럼 근대 이후에 이민을 통해 이주해 온 언어 공동체이다.



<그림 1> 이중언어 계승어 화자의 언어 발달(Valdés, 2001:11)

<그림 1>은 특정한 계승어를 구사하는 화자가 보이는 언어 발달 양상을 반영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계승어는 모국어에 비해 낮은 수준의 발달 양상을 보인다. 계승어는 학교에서 체계적인 학습에 의해 습득된 것이 아니라 가정환경에 의해 관습적으로 사용·습득된 영향 탓에 발달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닌다. 언어 발달의 과정에서 계승어는 학습자가 속한 사회의 모국어와의 접촉을 통해 나타나는 특성과 학습자가 지닌 계승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드러나는 특성의 영향을 받게 된다.

2) 계승어 학습의 방향성

Hornberger(1988:226)는 계승어의 가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계승어는 비공식적이고, 개인적이며, 유머러스한 상황에서 맥락을 이해하고 소통하기 위한 최선의 언어이다. 둘째, 계승어는 전통적 공동체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회적 상황을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한다. 셋째, 계승어는 소수 언어 집단의 기본적인 구두 언어 소통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넷째, 계승어는 다문화 가족 공동체의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수단으로서 작용한다. 이러한 가치를 구현하고 다문화

가족 자녀들을 사회의 중요한 자원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적절한 교육적 처방을 내리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계승어 학습의 목표는 학습자가 사회적·전통적 배경이 되는 언어를 자유롭게 변환하여 사용할 줄 아는 능력(translingual competence)과 학습자가 속한 사회의 관습적인 문화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전통적 문화 사이에서 비평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transcultural critical thinking), 그리고 학습자의 개인적 배경과 이질적일 수 있는 학습 집단 내에서의 사회적 인식력(social consciousness)을 증진시키는 데 있다.

계승어 학습자(HLLs; Heritage Language Learners)³⁾는 모국어 학습자와 외국어 학습자와는 다른 사회적·문화적·언어적 배경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학습자의 요구나 강점을 고려하여 그들과는 분리하여 교육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과 교육 활동이 계승어 학습자가 지닌 나름의 학습 동기와 특별한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국내의 계승어 학습자는 출생지와 입국 시기에 따라 크게 세 부류로 구분된다. 하나는 외국에서 태어나 학습이 투여되는 시기에 국내에 새로 입국하게 된 학생이며, 두 번째는 외국에서 태어났지만 어린 시기에 이주해와 국내에서 몇 년간 학교를 다닌 학생이며, 세 번째는 국내에서 태어난 학생이다.

일반적으로 새로 입국해 온 학생들은 한국어와 교과 내용 영역에 대한 교육적 처방이 계승어보다는 우선해야 한다. 이상적으로는 학생이 완벽한 이중언어 사용자가 되기 위해서는 학생의 모국어 능력과 문식성의 발달을 지속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응이 힘든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학생들이 가진 모국어를 통해 한국어와 교과 내용을 가르쳐 주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유형에 대한 학생들, 즉 외국에서 태어나 국내에서 학교를 다닌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학습자가 지닌 한국어 능력에 따라 계승어 문식성

3) 계승어 학습자는 학습의 내용과 학습자의 언어 능력에 따라 집단을 이루는 대상이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정규 수업 환경에서는 모국어 학습자와 같은 집단을 이루어 L1을 사용하여 대부분의 학습을 수행을 하고, 계승어가 목표어인 학습의 경우에는 외국어 학습자 또는 같은 계승어를 지닌 학생들과 집단을 이루어 학습을 하게 된다.

신장 여건이 달라진다. 이 학생들에게 우선 필요한 것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여 주어진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한국어 능력이다. 이를 어느 정도 갖춘 학생이라면, 이중언어 발달을 위해 학생의 모국어에 대한 유창성과 문식력이 요구된다.

세 번째 집단인 국내에서 태어난 다문화 가정의 학습자의 경우, 계승어 학습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이 요구된다. 말하기와 관련하여 학생들은 각자의 계승어를 완벽하게 구사할 수도 반대로 전혀 구사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 학생들의 계승어 읽기나 쓰기 능력은 읽기나 쓰기 상황에 대한 노출이 적은 관계로 매우 제한적이며, 몇몇 학생들만이 어느 정도 수준의 계승어 문식성을 갖추기 위해 학교나 부모가 속한 공동체를 통해 계승어 학습의 기회를 갖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이 집단에 속한 학생들의 언어 능력은 격차가 크고, 읽기나 쓰기 영역에 대해서는 매우 저조한 양상을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이 집단에 속한 학생들에게 계승어에 대한 가치를 인식시켜 주고,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부진한 영역에 대해서는 흥미로운 과제를 통해 지속적으로 학습의 기회를 노출하는 것도 중요하다.

문화적 이해나 표현, 사회적·언어적 정체성의 형성과 표출과 같은 측면 또한 계승어의 전승과 발전 양상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즉, 계승어 학습자, 계승어 공유 공동체를 둘러싼 맥락 요인은 학생들의 계승어 발달을 견인하기도, 또는 지연시키기도 한다. 계승어 학습자가 학교나 사회에서 그들이 전수받은 언어와 문화에 대한 높은 가치를 느끼게 될 때에는 소수 문화 집단의 일원으로서, 소수 언어의 화자로서 스스로의 정체성에 자부심을 갖게 된다. 반면에 학습자의 계승어가 왜곡되어 인식이 되거나 문화 또한 조롱이 대상이 된다면, 학습의 의욕은 떨어지기 마련이다. 학교는 계승어 학습자들이 그들의 문화적 뿌리에 대해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주류 사회에 성공적으로 동화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Wang & Garcia, 2002:4).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교육과 관계된 학교나 교육전문가들은 학생들의 문식성과 계승어 학습자들의 가정과 공동체에 존재하는 관습적 지식(Moll, 1992:20)에 대한 시각을 넓힐 필요가 있다. 이해력, 판단력, 창의력과 같이 지적 영역에 다양성이 존재하는 것처럼 계승어와 계승 문화에 대해서도 문

식성, 정체성, 지식, 담론 측면에서도 다양한 차원이 존재한다. 교육자들은 계승어 학습자들이 지니는 문식성의 정체와 가치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학습자가 지니는 문식성이 우리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다양한 내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어야 한다. 학교에서 실시할 수 있는 계승어 교육 시스템을 마련하고, 소수 집단 공동체에서 지속적으로 언어적·문화적 정체성을 심어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은 New London Group(1996)이 제안한 다중문식성(multi-literacy)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다중 문식성은 계승어 학습자가 지녀야 할 능력으로 규정할 수 있다. Group은 다중 문식성의 습득과 관련하여 문식성 교육의 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은 담론을 펼치고 있다.

문식성 교육의 목표는 직장, 권력, 공동체의 삶 속에 존재하는 언어를 발전시킴에 있어서 창의적으로 접근하고, 학생들의 사회적 미래를 설계하고 맡은 임무를 완수함으로써 성공적인 삶을 이루는 데 필요한 비판적 수행을 장려하는 것이다. ... 교육의 사명은 학생들로 하여금 앞으로 그들이 살아가게 될 공적인 삶, 공동체 내의 삶, 그리고 경제적인 삶의 온전한 참여자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가도록 하는 데 있다. ... 전통적인 문식성 교육은 특정한 방식으로 형성된 언어적·문화적 다양성을 배제한 주류 언어와 획일적인 문화, 형식적인 언어 규칙 등을 강조해 왔으며, 그것은 매우 제한적인 교육 기획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의 문식성 교육은 중층적 담론에 대한 협상 능력을 포함하는 문식성 교육으로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New London Group, 1996:60~61).

국내의 다문화 언어 교육이 대부분 한국어 교육을 지향한다는 점은 우리나라가 원론적으로 다문화주의가 아닌 동화주의를 고수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주류 언어만을 강조하는 그러한 접근은 우리 사회의 언어적·문화적 흐름과는 다른 사회의 획일화를 조장하는 움직임일 수 있다. New London Group의 문식성에 대한 확장된 관점은 계승어 교육에 있어서 다양성을 기회 요인으로 삼아 계승어 학습자가 지닌 배경과 위상에 대한 진단을 통해 그들의 교육을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근거가 된다.

계승어 학습자에 대해 언어 이외에 고려해야 할 또 다른 문제는 사회적 지식의 획득과 축적이다. 국내의 다문화 가정 자녀가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언어 문제이며, 두 번째는 언어 문제에서 기인한 학업 부진의 문제

이다. 교과서의 내용을 배우고 가르치는 도구적 성격의 언어가 한국어로 통일된 상황에서 계승어 학습자가 지닌 언어 부진이 학습 부진으로 이어지는 구조로 나타나고 있다. 스키마는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구축되어야 할 영역이며, 끊임없이 확장되어야 한다. 학교 교육을 통해 사회적 지식을 얻고 축적하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부여받고 수행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이다. 교육 전문가들은 계승어 학습자를 둘러싼 이러한 부정적 환경을 제거하고, 언어와 무관하게 학생들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계승어 교육이라는 화두는 단지 언어적 측면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이 장려되고 권장되는 환경이라면 계승어 능력은 한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사회문화적 도구로 활용될 수 있으며, 나아가 사회적 자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 차원에서 계승어 학습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주어진 책무라면, 그것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하나의 방안으로 SIOP 모형을 활용한 교육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3. SIOP 모형을 통한 계승어 문식성 신장 방안

1) SIOP 모형과 계승어 학습의 접점

SIOP 모형은 다문화 배경 학습자의 학문적 요구를 달성하기 위해 투입되는 교육 모형으로 정규 교육과정에 의한 프로그램으로는 학습 성취가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별 학습을 통해 문식성 신장을 돕는 방법으로 발전되어 왔다. 이 모형에서 교사는 학생들의 언어 수준과 학업 성취 정도를 중심으로 다문화 배경 학습자들을 관찰하면서 학생들의 수준과 능력에 적합한 복습과 평가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가 겪는 언어적, 학문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대학에 진학하거나 직장을 얻는 데 도움을 주고자 기획되었다.

SIOP 모형이 미국에서 국가 프로젝트로 개발된 배경은 다문화 학습자의 영어 능력과 수학이나 사회, 과학 등의 교과에 대한 지적 능력을 향상시킬 목적을 지녔다. 1990년대 중반 미국 내에서 늘어나는 다문화 배경 학습자들에 대해 성공적인 교실 수업을 이끌 수 있는 효과적인 학습 방법을 고민한 결과로 제안된 것이 SIOP 모형이다. Echevarria & Short(1999, 2004)를 주축으로 한 연구 프로젝트가 수행되었고, 프로젝트는 언어 교수와 내용 교수의 통합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 내게 되었다. SIOP 모형은 원래 수업 참관(observation)을 목적으로 하여 교수자를 평가하는 도구로 개발되었으나, 이후 교수자가 수업 계획을 구성하는 항목과 교수-학습 내용을 반영하는 도구로 활용하게 되었다(Echevarria et al., 2004, Short & Echevarria, 1999)

SIOP 모형은 크게 준비 단계(preparation), 교수-학습 단계(instruction), 복습 및 평가 단계(review/assessment)로 구분되고, 8가지 요소와 30가지의 세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요소는 실증적인 연구에 의해 설정되었다. SIOP 모형의 8가지 요소와 30가지 세부 항목은 언어 교수와 내용 교수의 통합을 위한 하나의 틀로 작용하고, 수업 관찰을 위한 유용한 도구로 활용된다(Echevarria, Vogt, & Short, 2008). SIOP 모형의 설계는 학생들에게 제공될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함에 있어서 교사들이 어떻게 계획하고 실행할지에 대한 지원 체계를 제공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SIOP 모형의 8가지 요소는 다음 <표 1>과 같다.⁴⁾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수업 준비 단계(Lesson Preparation): 언어 목표와 내용 목표를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단계2. 배경지식 활성화 단계(Building Background): 학습자의 배경 지식과 새롭게 획득하게 될 지식을 연결시켜 주는 단계3. 이해가능한 입력 단계(Comprehensible Input): Krashen의 입력 가설(i+1)에 바탕을 둔,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발화 속도, 학습 과제 및 내용에 대한 |
|---|

4) <http://siop.pearson.com/index.html>

- 명시적인 설명과 이를 보충할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는 단계
4. 전략 투입 단계(Strategies):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학습 전략을 제공하는 단계
 5. 상호작용 단계(Interaction): 학습자가 언어를 통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는 단계
 6. 연습과 적용 단계(Practice & Application): 학습자들이 언어적, 내용적으로 학습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심화된 수업 활동을 제공하는 단계
 7. 수업 실행 단계(Lesson Delivery): 새로운 개념을 강화하고 활동할 수 있는 학습 과제를 제공하는 단계
 8. 복습 및 평가 단계(Review & Assessment): 핵심 개념과 어휘에 대한 종합적인 복습과 학습자의 성취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단계

<표 1> SIOP 모형의 8요소 및 수업 단계

SIOP(Sheltered Instruction Observation Protocol) 모형이 계승어 교육에 적합한 이유는 모형이 가진 고유의 두 가지 특성인 ‘보호(sheltering)’와 ‘관찰(observation)’ 때문이다. ‘보호’의 의미는 계승어 학습자가 가진 특성에 대한 교육적 처방이라 할 수 있다. 계승어 학습자는 계승어나 한국어에 대한 숙달도가 낮고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학교생활이 원만하지 못하고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SIOP 모형은 이러한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습자를 불안 요소로부터 보호함으로써 학습자가 가진 내적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다. 나아가 적극적인 태도와 자신감을 형성하게 도움으로써 정서적 안정을 꾀하는 긍정적인 면을 지닌다. 또한 SIOP 모형은 학습자가 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끌고 교수자는 이를 면밀히 ‘관찰’함으로써 학습 목표에 도달하도록 유도한다. 학습자의 과제 수행 과정 및 상호 작용을 극대화시키고 교수자는 관찰을 통해 학습자의 요구가 수업에 반영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교수자가 수행하는 관찰은 학습자가 언어 습득에 필요한 어떠한 요구를 하는지, 내용 이해가 부족하지 않은지를 파악하는 과정으로

교수자와 학습자 간 상호 이해와 평가를 위한 유용한 도구로 작용한다.

2) 계승어 문식성 신장을 위한 SIOP 모형의 적용 가능성

계승어 문식성 신장을 위한 SIOP 모형의 기여는 계승어 학습의 특수성과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였을 때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거시적 관점에서 SIOP 모형이 계승어 문식성 신장을 위해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이원화 언어 프로그램으로 적용시켜야 한다. SIOP 모형에서 교수-학습의 핵심은 목표로 수학, 사회, 과학 등의 교과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다. 계승어 학습에 있어서 SIOP 모형이 진가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원화된 언어 프로그램으로 구동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어와 특정 계승어를 모두 구사할 수 있는 교사가 투입되어 계승어 학습자들에게는 계승어 문식성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고 한국어 학습자들에게는 특정 계승어를 L2나 외국어 문식성 신장 차원에서 가르치는 것이 이상적이다. 이 경우 한국어 학습자는 계승어 학습자의 내용 지식 축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⁵⁾ 이러한 몰입식 외국어 프로그램은 모든 학생들의 유창성과 문식성을 신장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둘째, 학업 문식성 신장을 위한 ‘학습 언어 능력’ 발달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SIOP 모형은 학문적 성격과 직업적 성격을 모두 지니고 있다. 학습 언어 능력은 다문화 배경 학습자가 학문적 내용을 학습하는 상황에서 수업 내용을 이해하며 새로운 지식과 문화를 수용하여 자신의 배경 지식과 결합하고 적용하여 의사소통하기 위한 언어 능력으로 정의할 있으며, 학습 언어 능력의 발달은 다문화 배경 학습자의 언어 기능, 학문적 내용의 이해력, 인지 전략, 사회적 적응 및 문화적 수용 능력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김소영, 2014:17 참조). 외국어 학습자이든 계승어 학습자이든 학문적 한계

5) 이원화된 언어 프로그램의 경우, 학습자의 계승어가 혼재된 수업은 목표어가 불분명해지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다. 하나의 목표어만 사용하는 수업이 효율적이며,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학생을 이들과의 공동 수업에 참여시키는 것은 언어적 목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이해를 도모하고자 위함이다.

와 열세는 박막화(薄膜化)에서 화석화(化石化)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제거할 수 있는 박막은 걷어내어 고착화를 막는 것이 학습의 역할이다. 교과 내용 지식의 신장을 큰 목표로 설정한 SIOP 모형은 구조화된 지식을 지속적으로 투입함으로써 학습 언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제 조건을 갖추었다.

셋째, 언어와 문화, 사회에 대한 코드 변환(code switching) 능력의 신장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계승어 학습의 목표는 학습자가 주류 언어와 계승 언어를 자유롭게 변환하여 사용할 줄 아는 능력(translingual competence)과 주류 사회의 관습적인 문화와 전수받은 민족 문화 사이에서 비평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transcultural critical thinking), 그리고 이질적일 수 있는 학습 집단 내에서의 사회적 인식력(social consciousness)을 증진시키는 데 있다. SIOP 모형의 핵심인 ‘보호’와 ‘관찰’은 이 세 가지 능력과 직결된다. 계승어로 언어와 내용 지식을 배워 익히는 것은 그 ‘앞’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인지적으로 배경지식과의 협상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구성해 가는 유기적이고 조직적인 과정이다. 곧 주류 사회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의 언어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보호와 지속적인 관찰과 지원이 필요하다. 계승어 학습자의 언어와 지식은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맥락적인 것으로 발전하여야 하며, 그것은 필요할 때마다 적절하게 변환되어야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넷째, 학생과 프로그램에 대한 주기적인 진단과 평가가 요구된다. 진단과 평가는 모든 교육 기획에서는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과정이며 요소이다. 계승어 학습자와 SIOP 모형에 대한 진단과 평가는 주기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평가의 준거는 무엇인지, 단계별 교수와 프로그램이 계획대로 수행되었는지, 예상한 결과는 도출되었는지,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에서 평가가 이루어졌는지, 학생의 과거·현재·미래에 대한 기록과 평가 기준이 설정되었는지, 학습자가 달성하고자 하는 유창성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교육적·사회적·정의적 영역에서 부수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학습자와 SIOP 모형에 대한 점검과 조정이 요구된다.

다섯째, 특화된 교육과정 설계와 자료의 개발이 필요하다. SIOP 모형은 외국인에게 주류 사회의 모국어를 가르치는 것이 설계의 기본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국적 출신의 학생들을 한 교실에 모아 두고 가르치는 것이 기본 전제로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계승어 학습에 SIOP 모형을 적용한다는 것은 기본 전제를 변형하는 기획이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도전에 대한 특화된 교육과정 설계가 반드시 요구된다. 교육과정을 설계할 때에는 ① 학생들의 유창성 수준과 요구, ② 학생들의 계승어, 배경, 학습 유형과 능력에 대한 가치 평가 ③ 균형 잡힌 세계관과 이질 집단 내에서 다른 구성원과의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표준화된 기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자료를 개발할 때에는 발음이나 어휘, 통사 등 계승어 체계 자체와 관련된 문제 등이 적절한 방식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계승어 학습자는 이중언어, 이중문화, 이중문식성이라는 목표 달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하고 교육과정 설계와 자료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Wang & Garcia, 2002:7).

여섯째, 소수 언어 공동체와 유기적 관련성을 맺고 학습이 진행되어야 한다. Parra(2013)에서는 스페인어 계승어 학습자들 대상으로 그들의 언어 공동체와 공동 작업을 실시한 결과 학생들의 언어적·문화적 문식성이 향상되었다는 연구를 내놓았다. 계승어 학습자를 위한 교육과정과 교육 프로그램의 설계와 시행에서 그들의 언어 공동체와의 협력은 효과와 효율성 면에서 큰 도움이 된다. 계승어 정체성의 실체, 학교교육 시스템에서 계승어 교육 프로그램이 나아가야 할 방향, 설계할 교육과정과 개발할 교재의 적절성 등은 계승어 공동체가 판단하고 지적하여 조정하는 데 큰 몫을 담당할 수 있다. 또한 계승어 공동체로부터 교수 자원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도 있으며, 언어 공동체가 보호와 관찰이라는 기제 안에서 학습의 연장선을 담당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다.

4. 맺음말

이 연구의 목적은 SIOP 모형을 기반으로 한 계승어 교육을 통해 다문화 배경 학습자의 계승어 문식성을 신장시키고 부모 나라의 언어와 사회, 문화에 대한 맥락적·비판적 이해 능력을 함양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데 있다.

계승어 학습자에게 투입되는 교육적 처방은 세대를 통해 전수되어 온 언

어적, 문화적 유산을 확고히 정립하며, 두 언어에 대한 유창성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 사회적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가치를 지닌다.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 차원에서 계승어 학습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SIOP 모형을 활용한 계승어 학습 방안을 제안하였다.

SIOP 모형이 계승어 교육에 적합한 이유는 ‘보호’와 ‘관찰’이라는 특성 때문이다. SIOP 모형은 계승어 학습자를 불안 요인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학습자가 가진 내적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SIOP 모형은 학습자가 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끌고 교수자는 이를 면밀히 ‘관찰’함으로써 학습 목표에 도달하도록 유도한다.

거시적 관점에서 SIOP 모형이 계승어 문식성 신장을 위해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언어와 교과 지식을 동시에 가르치는 이원화 언어 프로그램으로 적용시켜야 한다. 둘째, 학업 문식성 신장을 위한 ‘학습 언어 능력’ 발달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셋째, 언어와 문화, 사회에 대한 코드 변환(code switching) 능력의 신장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넷째, 학생과 프로그램에 대한 주기적인 진단과 평가가 요구된다. 다섯째, 특화된 교육과정 설계와 자료의 개발이 필요하다. 여섯째, 소수 언어 공동체와 유기적 관련성을 맺고 학습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다문화라는 특수한 환경에 놓인 학습자들에게 계승어 전수라는 교육적 실현을 목표로 SIOP 모형을 새로운 측면에서 적용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참고 문헌

- 김대희, 『언어 이데올로기와 계승어 교육에 대한 고찰』, 『국어교육학연구』 제43권, 국어교육학회, 2012.
- 김소영, 『SIOP 모델을 활용한 다문화 학생 대상 학습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서울교대 석사학위논문, 2014.
- 김이선 외 3인, 『다문화가족의 언어·문화 사용 및 세대간 전수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4.
- Benmamoun, E., The Administration of Heritage Language Program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Heritage Language Journal*, 10(2), 2013.
- Fishman, J. A., 300+ Years of Heritage Language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In J. K. Peyton, D. A. Ranard, and S. McGinnis(Eds.), *Heritage languages in America: Preserving a national resource*(pp.81-97), McHenry, IL: Delta Systems Co., Inc. 2001.
- Moll, L., Bilingual classroom and community analyses: Some recent trends, *Educational Research*, 21, 1992.
- Montrul, S., How “Native” are Heritage Speakers?, *Heritage Language Journal*, 10(2), 2013.
- New London Group, A Pedagogy of Multiliteracies: Designing Social Futures, *Harvard Educational Review*, Vol.66(1), 1996.
- Parra, M. L., *Expanding Language and Cultural Competence in Advanced Heritage and Foreign Language Learners through Community Engagement and Work with the Arts*, 2013.
- Sekerina, I., A Psychometric Approach to Heritage Language Studies, *Heritage Language Journal*, 10(2), 2013.
- Valdés, G., Heritage language students: Profiles and Possibilities, In J. K. Peyton, D. A. Ranard, and S. McGinnis (Eds.), *Heritage languages in America: Preserving a national resource*(pp.37-77), McHenry, IL: Delta Systems Co., Inc., 2001.
- Wang, S. & Garcia, M., *Heritage language learners*, Position Paper,

National Council of State Supervisors of Foreign Language, 2002.

<http://siop.pearson.com/index.html>

Abstract

Application Possibility of the SIOP Model for Developing Heritage Language Literacy

Kim Daehee(Wonkwang Univ.), Choi Sunhee(Jeonju Univ.)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ways to develop multicultural students' heritage language literacy and their contextual and critical competence regarding their parents' language, society, and culture using the SIOP model. From a macro perspective, the SIOP model can be applied to the development of heritage language literacy as follows: 1) working as a dual language program where heritage language and subject matter knowledge can be taught simultaneously; 2) developing academic language proficiency; 3) improving the code switching ability with relation to language, culture, and society; 4) evaluating both students and program on a regular basis; 5) developing a specialized curriculum and instructional materials; and 6) having a close relationship with minority language communities.

■ Key words: Heritage language education, Heritage language learners, Literacy, Language Community, the SIOP model

접수일자: 2016. 6. 28 심사일자: 2016. 7. 15 게재결정: 2016. 8. 1